

李 貞 姬 議員

“나무심기는 미래도시의 또 다른 시작입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 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150만 대전시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다른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시정을 펼치시는 박성호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을 비롯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고민해 왔던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에 대해 시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가 숲의 도시 '푸른 大田'을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금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2백만 그루씩 총 3천만 그루의 나무심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녹색환경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3천만 그루 나무심기는 민선 4기 박성호 시장님의 핵심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도 이 사업이 미래 세대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는 데에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본이 되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세부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인지 일선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점과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고 하는 시민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우려는 시에서 나무심기 사업 원년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데에 기인됩니다.

특히,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나 각급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협력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운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시장의 공약사업이라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어 관 주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현실성이 결여된 전시적 행정이라 아니냐 하는 여론입니다.

그야말로 '나무는 보되 숲을 보지 못하는' 과오를 범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실천적 의지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한 장기적 안목에서 전체를 조망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숫자 3천만이라는 실적위주의 사업추진 문제입니다.

대전시의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계획<표 1>을 들여다 보면, 교목을 455만 그루(15.2%) 식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철쭉, 회양목 등 관목을 2천 545만 그루(84.8%) 식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현황에서 보듯이, 대전시가 자랑하는 3천만 그루의 대부분은 큰 키(8m 이상)로 자라는 교목이 아닌 작은 나무, 관목(2m 이하)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3천만이라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도시의 녹지공간이나 수종의 조화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실적위주의 물량만을 계획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님! 지금이라도 숫자에 얽매이지 마시고, 적은 양의 나무를 심더라도 조화가 잘 이루어진 아름다운 숲의 도시를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현실적인 사업플랜을 재고할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1>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계획

사업별 구분		나무식재량 (천그루)			사 업 비 (백만원)				
		계	교목류	관목류	계	국비	시비	구비	민자
총 계	총 계	3000만	4,550	25,450	595,630	62,418	157,111	92,087	284,014
	1단계 (2007~10)	800만	1,213	6,787	163,791	17,164	43,204	25,323	78,100
	2단계 (2011~15)	1100만	1,668	9,332	207,427	21,737	54,714	32,069	98,907
	3단계 (2016~20)	1100만	1,669	9,331	224,412	23,517	59,193	34,695	107,007

□ 3,000만 그루 나무심기(100%)

- 공공식수 : 1,420만 그루(47%)
 - 보조사업 : 1,165만 그루(82%) / 자치국(국·시비 보조)
 - 자체사업 : 255만 그루(18%) / 실·과·사업소
- 유관기관식수 : 532만 그루(18%) / 토지?주택?도로?도시공사 등
- 시민식수 : 1,048만 그루(35%) / 건축조경, 시민자율식재

□ 소요사업비

- 총 5,956억원(국비 11%, 시비 26%, 구비 15%, 민자 48%)
- 공공식수 : 2,987억원(50%) / 국비 18%, 시비 51%, 구비 31%
 - 보조사업 : 1,852억원(62%) / 국비 3%, 시비 47%, 구비 50%
 - 자체사업 : 1,135억원(38%) / 국비 42%, 시비 58%
- 유관기관식수 : 1,597억원(27%) / 국비 5%, 시비 3%, 민자 92%
 - * 민자 : 도시개발관련 자체 공원녹지조성, 아파트 건축조경, 단독주택 조경, 현수, 현금 등

다음은, 시민들이 식수하는 나무의 관리 문제입니다.

시에서는 금년 초부터 시민들의 나무심기 동참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참여를 유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관 및 단체들이 기념식수나 헌수식재를 통해서 관내 여러 지역에서 많은 나무를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서너 차례 참여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민 '헌수동산' 인 중구 테미공원을 답사 해 보았습니다.

테미공원에는 중구 요식업 등 여러 단체에서 헌수한 왕벚나무 및 스트로브 잣나무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왕벚나무의 경우, 1m간격으로 심어져 있었으며 벌써 고사한 나무들도 많았습니다.

아울러, 왕벚나무가 제대로 자라면 수십미터까지 자랄 수 있는 수종으로 알고 있는데 1m간격으로 식재한 것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크게 자란 왕벚나무 밑에 교목성 상록수인 스트로브 잣나무가 밀식되어 있었는데, 왕벚나무 그늘 밑에서 제대로 자랄 수 있을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한밭수목원의 경우에는 더욱 우려가 됩니다. 3천만 그루 나무심기에 대한 시민 및 사회단체, 기관 참여가 늘어나면서 한밭수목원에 많은 나무가 심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목원은 일반 공원과는 성격이 다른 수목원만의 고유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민들이 원한다고 수목원에 계획되지 아니한 아

무 나무를 심어 기념식수 공원화로 만드는 것은 수목원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수목원은 각종 식물에 대한 교육 및 연구 기능 그리고 식물의 종에 대한 다양성과 보존 기능 등을 가지고,

나무 하나 하나 적합한 장소에 필요한 수종이 식재되어야 하며, 품종 또는 산지 등을 포함한 나무의 정확한 이력을 지닌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의 보존 및 학술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수종을 선별해서 심어야 하며, 심는 위치도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전문가의 설계에 따라 철저한 계획 하에 심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밭수목원의 현실은 물량위주의 목표 채우기에 급급한 나머지 기념식수나 현수 명분으로 아무 나무나 마구잡이식으로 식재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나무심기 실태와는 달리, 대구시에서는 시민식수공원을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갖고 식재 장소에서부터 수종선택 등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관리계획하에 식재함은 물론, 다 자란 후의 공간까지 확보하여 시민공원을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도 수목 식재 장소의 지역적 특성이나 생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식재하는 방법을 벤치마킹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기금 모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에서는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 시민운동본부 등록 신청서를 제출

했으나, 모금 목표액 300억원이 너무 커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목표액을 10억원, 나중에는 30억원으로 조정해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았지만, 어찌 보면 다행일 수 있습니다.

만일, 최초 목표액으로 승인되었더라면 시장의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시민과 기업들은 더 많은 준조세를 부담하는 어려움이 뒤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난 3월, 3천만 그루 나무심기를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출범한 푸른 대전 가꾸기 시민 운동본부에서 현재까지 접수한 기탁내역에서 여실히 나타납니다.

금융권 8억 1천만원, 건설업체 1억 5천 5백만원, 기관·단체에서 2억 2천 60만원 등 대부분 대전시의 각종 사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기부금을 기탁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민 성금은 시 공무원을 제외하면 모두 7명에 6만 7천원이고, 개인 헌수는 11명에 13그루가 전부였습니다. ('07.6.13 현재) 이와 같이 시민참여가 저조한데, 자발적인 시민동참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 또한, 민간의 자발적인 기금 조성 방안은 있는지, 이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인력 문제입니다.

우선 시급한 문제는 일선 구청의 인력 확보문제입니다. 서구청을 제외한 각 구청별 담당인력을 보면, 2명(6급 1명, 7급 1명)이 3천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역부족입니다.

그러므로 구청장과의 협의를 통해서 전담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시며, 인력보강 의지는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녹화 조성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먼저, 가로수 관리입니다.

우리 시 원도심 가로수의 경우 전선줄에 뒤엉켜 기형적인 수형을 보이고 있는데, 가로수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전주·전선의 지중화가 급선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한전이나 통신공사로부터 전주의 지중화를 협의하여 정제된 가로수 수형 및 녹지기능을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구시의 경우 제1차 푸른 대구가꾸기 사업 시행초기에 무절제한 전주, 전선에 의해 가로수의 수형을 훼손시킨 것이 가장 큰 시행착오였다고 합니다.

그 후 대구시는 5~6년 전부터 도심 주요 도로변 전주·전선의 지중화로 가로수가 제대로 형태를 갖추고 잘 자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가로수의 경우 보호대로 인해 상처받고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가로수가 관내에 상당수 있는 바, 주변정리와 함께 가로수 보호대 정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로수는 수종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계룡로에 심은 백합나무는 생육환경이나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데다 관리마저 소홀해 다시 예산을 들여 은행나무와 느티나무로 교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대 정문에서 유성시가지를 잇는 대로변의 메타세쿼이어는 도심보다 천변이나 호수주변에 식재하였을 때 아

름다움이 배가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삭막한 도시 내에서 능수버들만큼 부드러운 경관을 제공해주는 나무도 없는데, 70~80년대 유등천변 등지의 능수버들이 꽃가루 공해라는 잘못된 상식으로 대전지역 대부분의 천변에서 제거 되었는데, 큰 손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모든 수목은 각자의 생태적소에서 자연 상태로 자랄 때 아름답다는 사실을 수종 선정시 유의해야 할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로변 전선 지중화와 가로수 특성화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통섬에 대한 것입니다.

시에서는 <표 2>와 같이 최근 18개소에 약 18억원의 예산을 들여 소나무와 느티나무 등을 많이 심었습니다. 소나무는 공해에 강한 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소나무를 혼잡스런 교통섬에 심은 이유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혹시 市木이 소나무이니까 상징적이고 관료적인 발상에서 즉흥적으로 수종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고사목이 발생될 경우 시민의 혈세 낭비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2> '07 교통섬 소나무식재 현황

구청별	장 소	수 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18개소	소나무등 14종 51,373본 소나무 R20cm이상 278본	1,789,203	
동 구	대동5거리등 3개소	소나무등14종 20,660본 소나무 R30cm이상 32본	334,007	
중 구	시민회관교차로등 3개소	소나무등4종 10,415본 소나무 R20cm이상 76본	374,591	
서 구	갑천삼거리등 5개소	소나무등 4종1,280본 소나무R35cm이상 54본	348,830	
유성구	월드컵경기장4가등 2개소	소나무등 11종 15,963본 소나무 R30cm이상 61본	381,775	
대덕구	덕암동과선교등 5개소	소나무등 2종 3,055본 소나무 R35cm이상 55본	350,000	

다음은, 시민사회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교육으로 시민들이 공감하여 본 사업에 관심을 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피부로 직접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나무를 심는다 해도 그 가치나 의미는 퇴색된다고 봅니다.

시민교육을 통해 전국의 유명 숲을 시민들에게 현지 소개하면서 숲의 기능, 내력, 보존가치, 녹지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 등을 함양시킬 수 있다면, 3천만 그루의 절반만 심어도 나무심기 운동은 성공했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무심기에 대한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대전의 랜드마크 공원 조성을 제안해 봅니다.

선진 국가들은 오래 전부터 인간과 환경, 그리고 도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를 고민해 오고 있습니다.

고민의 핵심은 도시가 자연을 지키고 함께하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위기의식에서입니다.

유럽 선진도시들의 도심 녹화율은 현재 25%에 이르고 있다고 하며, 이들은 도시의 녹지율을 4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도시 내 산림 확충계획에 심혈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대전시도 총면적(539.78km²) 대비 64%의 충분한 녹지를 갖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린벨트, 외곽지역, 산림지역 등을 제외하면 시내권 녹지율은 11%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중심부에 위치한 월평공원을 대전을 상징하는 '랜드 마크'공원으로 조성한다면, 서울의 남산, 수원의 팔달산 처럼 도심 속의 허파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간의 조성과 관리에 대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녹지 환경 조성은 후세를 위한 현세대의 배려라는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둘째, 시정 과제의 추진과정에서 녹지공간의 중요성이 우선적으로 강조되어야 하며, 도시의 확대 팽창을 구실로 무차별적으로 녹지공간이 잠식되는 일은 최대한 억제하고, 도심 속의 녹지를 확대하는 '숲 속의 도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셋째,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녹지조성 사업에서 관련 전문가 및 사업 전담 추진기관의 견해와 경험이 존중되고 일과성이

고 즉흥적인 구상이 배제되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녹지 공간 조성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최대한 수렴되어야 하지만, 이들 의견이 녹지 관련 기본 원칙을 벗어날 경우에는 홍보와 교육을 통해 잘못된 의견을 배제해야 합니다.

다섯째, 녹지 관련 사업예산에서 녹지 공간 조성을 위해 필요한 부지 확보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속적으로 배정하여야 합니다.

여섯째, 녹지 공간 조성사업은 민, 관, 산업 및 공공단체의 관련 주체들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보다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일곱째, 녹지공간의 유형별로 그 조성사업 추진시에 기술적인 세부 원칙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합니다.

여덟째, 도심 녹지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건물, 주택, 각종 시설단지 간의 울타리를 철폐하여 연속성이 강조된 녹지공간이 조성되도록 법적인 조치와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전시 녹지 공간 조성에 필요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시장께서 우선적으로 반영할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과 도시림 조성은 현재에 살고 있는 자신만을 위한 일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와 후손을 위한 성스러운 과업입니다.

시장님 저서에서 밝힌 행정 철학 '다리를 놓는 사람은 자기가 건너기 위해서가 아니라 뒷사람을 위해 다리를 놓는다'와 같이 후대를 위한 사업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무심기 사업 또한 녹지에 대한 기본철학을 가지고 사람에게 맞추기보다는 자연과 어우러진 녹지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3천만 그루라는 양적인 정책보다는 시민들이 직접 느끼고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발적인 시민운동으로 승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이 가시적인 성과에 매달려 인위적이고 무리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시장께서 다시한 번 재검토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